

칼럼

장기채 주필



가난한 노인의 나라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낸 이 시대 노인들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영국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이 인도의 낡은 호텔로 모여 들었다. 적은 비용으로 인생의 황혼기를 멋있게 보낼 수 있다는 과장 광고에 속은 사람들이었다.

이 이야기는 코미디 영화 베스트 엑조틱 메리골드 호텔의 줄거리다.

비록 영화 속 이야기지만 선진국에서도 노후 준비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오죽했으면 은퇴자가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을 찾아 먼 타국까지 가는 것을 보면 짐작이 간다.

리나라는 전 세계국가들 중 잘사는 경제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OECD 국가들 중 경제순위로 보면 10위권 내에 들어간다.

자식 한 사람을 대학졸업까지 시키는 데 드는 양육비가 대학 2억7천여만 원이 든다는 연구가 있었다.

분명하다. 그러나 그 교육열을 그저 칭송하기에는 마땅치 않다.

바로 과도한 교육비지출이 노후 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의 부모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비 사교육비로 지출해 고학력 자식 만들어 놓고

불황 속에서도 노인을 먼저 배려한 나라들과 달리 한국의 노인 복지 재정 지출은 주요국 중 가장 적은 편이다.

인이 한 집안의 기둥이자 가장으로 존경받던 시절이 있었다. 1884년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서 땅을 밟은 호러스 알렌은 경로효친의 전통에 감탄하며 '조선은 노인들의 천국'이라 표현했다.

이 자료에서는 역시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영역은 '소득보장'으로 나타났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을 말하는 '소득보장' 부문이 96개국 중 80위로 노인이 가난한 나라다.

社說

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해야

광주 전남에도 고층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하더라도 건물의 23층 이상은 불이 났을 때 외부로부터의 구조나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소방청에서 보유한 가장 높은 사다리차는 최고 70m짜리로 28층까지 접근할 수 있다.

전국에 널리 보급된 사다리차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최고 55m 짜리로 22층까지 닿을 수 있다.

이것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 모두 160대가 보급돼 있다.

최고 높이는 55m, 22층이다.

23층 이상은 자체 소방·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화재 때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진 의원은 23층 이상에 사는 시민들은 불이 났을 때 스스로 꺼거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만 107개가 있으며, 부산이 28개, 서울이 22개, 경기와 인천이 각각 19개로 가장 많았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 고가사다리차 구입 등 고층아파트 화재시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稅 熟 貢 新

稅 熟 貢 新

▷ 뜻: 곡식이 익으면 부세하여 국용을 준비하고, 신곡으로 조묘에 제사를 올림.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겨울철 화재예방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전열 난방기구의 사용과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각종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역시 커지는 시기이다.

지난 12일 새벽에도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40대 주부가 화재를 피하려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화재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순소방서에서는 다가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으로 소방안전전문화 조성, 생활안전 소방정책 추진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및 산불피해 방지 적극 지원 맞춤형 화재예방과 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생명 지키기 등이 있다.

아울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예방이 필수인 민품도민들께라도 전열기구 등의 안전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렇다면 겨울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열 난방기구의 취급과 사용 상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전기장판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하며,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고 특히 전기장판은 절대로 접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전열기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도록 하고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몸 전체를 잡고 뽑는다.

셋째, 석유난로는 불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유하거나 이동하지 않고 전기난로 및 가스기구 등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고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한다.

특히 커튼이나 가연물질이 난로에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혹 시라도 석유난로에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난로를 절대로 옮기지 말고 소화기나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덮어 질식소화시킨다.

이와 같이 겨울철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하는 전열, 난방기구의 취급과 사용 상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이로 인한 화재사고의 아픔은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정호 / 화순소방서 예방홍보팀장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